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신동*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UPM)	기간	2016. 6. 25(토) ~ 7. 23(토)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필리핀 대학 마닐라(UPM)에서 1달 동안 수업 듣는 것이 아닙니다!!!!</p> <p>1달 동안 수업들을 장소 즉 대학은 아니고 학원위치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옆 '수빅' 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학원이름은 SLC입니다.</p> <p>규모 시설은 음.. 우리학교 남자 학생사 크기에 , 우리학교 후문에 있는 분수 크기보다 조금 큰 야외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p> <p>학원 내 와이파이는 남자 학생사 기준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중앙 만 와이파이가 터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신기하게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p> <p>하지만!!! 치안 수준이 떨어지는 필리핀에서 수빅이라는 도시는 길거리가 한국 보다 깨끗합니다. 시민의식이 비교적 높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p> <p>그리고 우리학교 도서관 편의점 보다 규모가 큰 상점에는 총을 휴대한 경찰 가드가 있습니다.</p> <p>여러분이 자주 가게 될 HARBOR POINT 와 SM몰에는 정말 왜 이렇게 가드가 많을까 하는 정도로 많은 수의 가드를 쇼핑몰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p> <p>종합하자면</p> <p>여러분의 환상을 깨주기 위해서 나쁜 점을 다 나열했지만, 다시 한 번 저한테 캐나다 갈래 필리핀 갈래 100번 물어도 저는 필리핀을 가고 싶을 만큼 , 영어 공부하기에 좋고 , 여유로움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필리핀입니다.</p>

수업	<p>수업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4시간 ,점심시간 1시간 후 1시부터 5시까지 오후 4시간해서 총 8시간입니다.</p> <p>8시간 중 5시간은 그룹수업 ,3시간은 개인 수업입니다.</p> <p>도착한 다음날 레벨 테스트를 보고 모든 수업이 자기 수준의 맞게 반이 편성 됩니다.</p> <p>우리가 가게 될 SLC 학원 선생님들은 한마디로 표현 하자면 열정이 엄청 납니다.</p> <p>두 번째로는 재미있으십니다.</p> <p>자신이 소심한 성격이고 ,영어를 못한다고 해도</p> <p>경험 많으시고, 유능한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이해를 시켜 주십니다.</p> <p>가서 느끼시겠지만</p> <p>영어를 못하더라도 우리는 제스처와 ,즉 손짓 얼굴 표정, 그리고 발음, 억양으로 영어를 듣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고,</p> <p>또 영어 문장이 아닌 단지 단어로도 선생님과 소통을 하는 기적을? 경험 하게 됩니다.</p> <p>이때까지 토익공부, 문법 공부로써 영어가 아니라</p> <p>영어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 로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내가 진짜 부족한 부분을 찾게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성취감도 얻게 되었습니다.</p>
Activity	<p>이번에 제가 리더 로서의 능력은 부족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필리핀대학마닐라(UPM) 팀 리더로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p> <p>하는 일은 액티비티 정하고 가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액티비티에 관심 기울이고, 스트레스 받았었는데요.</p> <p>차기 리더가 이 글을 읽고 도움을 조금이나마 받았으면 좋겠네요.</p> <p>일단 중요한 것부터 언급하자면 첫주!! 그리고 첫주 액티비티가 한 달간의 생활을 좌우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p> <p>학교에서는 같은 학과 선후배로 생활을 하는데,</p> <p>여기서는 각각 다른 학과 또 다른 학년으로</p> <p>강제성은 전혀 있을 수 가 없고 개인의사가 존중됩니다.</p> <p>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이 싫으면 안하면 됩니다.</p> <p>자기가 시간투자하고 돈 내고 왔는데 억지로 황금 같은 시간에 남들한테 이끌려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이끌려가든 다 좋은 곳입니다.)</p> <p>그래서 차기 리더가 팀원들과 같이 액티비티를 가게 하려면 권유와 부탁과 단체로 갔을 때의 돈의 절약을 말하면 됩니다.</p>

차기 리더분은 첫주 수요일쯤에 팀원들과 액티비티 오리엔테이션 듣습니다.  
듣고나서 액티비티를 정하려면 의견을 모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시간도 많이 부족하고요(수밤, 목요일, 금요일))

저는 어학연수 가기 전에 그냥 희망조사 한하면서 액티비티 10개중 가고 싶은 곳 5곳 투표 했었는데요. 어학연수 가기 전에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의견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서먹서먹 하거든요. 친해 졌다고 생각 들면 헤어질 때입니다.

일단 저희가 갔었던 주말 액티비티를 나열 하면

첫주는 선생님들과 같이 수빅 투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는 요트를 탔습니다.

세 번째 주는 목요일부터 쉬지 않고 장마가 와서 어디 갈 생각을 못했구요

마지막 주인 네 번째 주는 카마얀 비치에 갔습니다.

요트는 한 시간에 6000페소이고 최소2시간입니다.

요트타고 갔다 오는 것이 2시간이기 때문에 최소2시간이고

저희는 4시간을 선택 했었는데요

중간에 섬 옆에 정박을 한 다음에 요트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맥주도 마시고(취하면 위험하니 조금씩 ㅎㅎ) 요트에서 스노우쿨링 장비도 대여해서 정말 맑은 물에서 바다 속 구경도 했습니다.

차기 리더 분께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돈입니다.!!!

저는 필요 할 때 마다 돈을 걷고 모자를 때 또 걷었는데요.

돈 계산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하면 120페소씩 20명 걸으면 한두명 동전 나오고, 또 돈이 500페소 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서.

해주고 싶은 말은 돈은 최소100단위로 걷고,

또 방 마다 돈을 걷어서 여자방 따로 남자방 따로 돈을 걷어야지

절대 혼자서 다 할 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을 돌아보면 도와주시는 착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트비 종합하면\$\$\$\$\$

1. 교통수단 FB(14인승) 2대 + 운전기사 팁

2. 요트 가기전 장값 (저희는 HARBOR POINT에서 장보았는데

너무 비쌉니다. PUBLIC MARKET 가시면 정말 가격 많이 깎을 수 있습니다.) (맥주, 고기, 피자, 망고!!!! 여러 가지 과일들 생수 비치볼 기타등등)

저희는 5명씩 그룹 수업 들어서 4개그룹이 있었는데요 2개 그룹은 먹을 음식, 1개 그룹은 맥주랑 음료수 생수, 1개 그룹은 바다에서 놀 장비로 비치볼 등등으로 그룹 나누어 서 장 보았어요.

3.제일 중요한 요트값은 (6000 \*4시간 / 사람수) + 선장한테 팁 500페소  
저희는 저희 학생만 같이 간 것이 아니라 SLC학원에서 타이완 학생들도  
있었는데 저희랑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24000 /(순천향대19+타이완7)

4. 요트에서 스노우쿨링 장비대여 약 1500~2000페소 인원수에 따라서  
@@@@요트 종합@@@@

차기 리더분은 개인당 미리 1500씩 걷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마다 4500 여자방, 남자방 따로 걸어서

개인으로 돈 확인 하지 말고요,

방책임제로 방호수로 돈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하고요

차기 리더분이 남자이시면 여자 대표 한명 도와 달라 하시고

남자 중 제일 나이 많은 분께 도움 구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돈 계산 하고요 .

끝난 뒤 남은 돈은 균일하게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미리 위에 과정을 공지해서 팀원들한테 믿음 주면,

불만 없이, 깔끔하게 요트여행 즐길 수 있습니다.

카마얀 비치

바다 들어가는데 입장료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나 음료수 들고 들어가다 걸리면 추가 돈 낼 수도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상점에서 사먹어야 된 다네요.

개인 500 페소 오두막 1500페소 (약 15인용)

부원장님께서 국제 학생증 빌려주셔서

저희는 개인 입장료 50%할인 받았어요!!

카드 한 장으로 10명 할인 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여러 장 챙기세요.

그리고 거기에 카약이 있었는데

못 탄 것이 너무 후회 되네요 ππ

나중에 그룹마다 광고영상이랑 뮤직비디오 찍으실텐데

액티비티 가서 많이 찍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위에는 단체로 간 것이고요.

타이완 학생이 승마하는 곳을 알아서 같이 가보았습니다.

승마는 한 시간에 770 페소 교통비 약 250 페소 (합쳐서) 왕복 500

갈때는 FB 2번 갈아타서 가면 40페소면 되요 ㅎㅎ

저는 필리핀에서 처음 승마 해보았는데요.

말도 진짜 크고 예쁘고, 멋있고 주변 환경이 정말 예뻐니다.

그리고 폭포까지 가는 1시간 코스도 있습니다.

못 가본곳 사파리, 해양스포츠 ,아쿠아리움 등등 있는데

주말 시간 잘 관리하셔서 가셨으면 좋겠네요.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필리핀 날씨는 농담으로 HOT HOTTER HOTTEST 이라고 하는데요. 예... 더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겪게 될 물갈이와 몸살로? 에어콘이 시원해지다가 추워질 것입니다. 얇은 긴팔, 또는 얇은 바람막이 하나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 에어컨이 몸이 아플 때는 춥더라고요.
안전	첫주는 모든 필리핀인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필리핀인들을 경계했었는데 나중에는 편견이 깨졌었습니다. 상점마다 게시는 착한 가드분, 길모를 때 여쭙어보면 친절히 설명해주는 현지인들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편견은 깨지더라도 조심할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처럼 자신의 지갑 또는 핸드폰을 올려두는 행 위,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피하셔야 될 것입니다. 가방 앞으로 매기, 개인 귀중품 잘 챙기기는 기본이고요. 그런 것 말고는 저희 갈 곳은 치안은 정말 좋았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input type="radio"/> ) 홈스테이 ( <input type="checkbox"/> ) 외부 숙소(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  학교 기숙사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학원 내에 있는 기숙사입니다. 학원 시설은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공부하기에는 딱 좋은 환경입니다. 와이파이 없이 ,핸드폰 사용이 줄어들어서 그 남은 시간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불편하고 답답했지만 ,되돌아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월화수목 밤 열시까지 금토 새벽 2시까지 통금입니다.
식사	학교식당( <input type="radio"/> ) 홈스테이 ( <input type="checkbox"/> ) 외부식당 (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checkbox"/> )  아침 점심은 학원 안 식당에서 공짜 밥 (이미 여학연수비에 포함 되어서) 저녁은 시내 나가서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치킨과 밥을 같이 먹는 치밥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ㅎㅎ 코코라임, 줄리비, 망이나샬, (하버 포인트 주변) 에스프레소, 미트플러스, 텍사스쥬 , 테라스 호텔, 피어원 (보드 워크 주변) E.T, Jjang, HD1 (SM몰 뒤쪽 )
교통	학원내 기숙사에서 자니 통학 방법은 4층에서 걸어서 내려오기. 하지만 5시 땡 하고 수업 끝나면 선생님들도 단체로 집에 가시기 때문에 그 때 6~7명은 같이 FB타고 시내로 갈 수 있습니다. 공짜로 ㅋㅋㅋㅋ @@@@교통수단 @@@@@@

작은 버스 7페소 봉고차 같은 FB 14페소  
오토바이랑 결합된 3인용 트라이 시클 35페소

택시에서 가격이 경충 됩니다.

택시 학원에서 하버포인트

학원에서 하버포인트 가는 길이 일반통행이기 때문에 빈 택시 잡으면 100페소에  
도 갈 수 있습니다.

콜택시는 200페소인데 250 페소 까지 부릅니다.

항상 탈 때 가격을 먼저 물어보아야지 내릴 때 물어 보면 높게 부를 때가 종종 있  
습니다.

비슷하게 돌아 올 때는 적어도 120 많으면 250 페소입니다.

택시 타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택시 모여 있는 곳 120 페소입니다. 가격이 제일 싸요

위치는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니 가셔서 물어보세요.

그다음 하버포인트 중앙에 키 크고 잘생긴 분이 계신데

택시라고 말하면 호루라기 불거나, 손짓해서 저 앞에 기다리는 택시가 1대 옵니  
다. 보통 150페소

SM물 근처에서는 알아서 한국인 보면 택시호객 행위 할라고 택시 택시 부르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은 호객 행위를 하고 택시기사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객하는 사람한테 집에 갈 때 180 페소 부르세요.

그러면 200페소 부를 겁니다.

하버 포인트까지 걸어가기 귀찮으면 200페소 주고 타면 됩니다.

How much? 묻는 순간 250에서 300페소 부릅니다.

SLC라고 하면 모르시는 기사분이 있어서

그럴 때는 QUBI (쿠비) 라고 말하면서

JEST CAMP 또는 TREE TOP이라고 하시면 대부분은 아십니다.

학원 뒤가 바로 제스트 캠프랑, 트리탑 등등 어드벤처 있어서

학원으로 복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해주고 싶은 것은 FB !!!!

하버 포인트에 주차장 큰 거 있는데 거기서 FB 타는 곳 있습니다.

표지판이 4개인가 5개 있었는데 맨 오른쪽에 QUBI라고 적혀있어서

SLC또는 JEST CAMP말하면 OKAY 라고 하면서 타라고 할 겁니다.

가격은 14페소입니다. 자신이 주차장 근처고 돈도 없고 현지인하고 같이 타고 싶  
으면 14페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535500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76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주말 액티비티 (요트,해변,승마)		
CITY SPA, SHINING STAR 에서 오일 또는 드라이 마사지	한시간 300페소	
눈 다래끼로 안과(작은병원)	2000페소	
저녁 값	120~500페소	망이나샬 PM2 120페소 ~ 미트플러스 스테이크 500페소
고아원 선물비용	300페소	
교통수단	7페소~250페소	버스 7페소 콜택시 250페소
테라스호텔!!!	300페소로 수영장, 음식값 포함	
1달러 1190원 535,500 450달러 1달러 46페소 정도 100달러 4600페소 1페소는 23원 정도 대략적인 값 입니다.		
합계	450달러	535500원 ,20700페소

#### 5. 출국 전 준비사항

비싼 캐나다 가는 대신 필리핀에서 잘 놀자 하는 생각으로 450 달러 뽑았었는데 결코 많은 돈이 아니 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한국 선물용으로 말린 망고사니 돈이 없어서 잘 놀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250 또는 300 달러 가져왔었는데 중간에 돈이 부족해서 비싼 수수료 내가면서 해외에서 돈 뽑았습니다.

노트북은 적어도 그룹 당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동영상 편집, RESUME 작성 등등 공부할 책은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3~4권 가져갈 생각 이었는데 많은 후기를 읽어보니 책 가져가도 안 보게 된다고 했는데요.

예 정말 그러네요 ㅎㅎㅎㅎ 저는 스피킹책 1권 가져가서 공부할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쳐다만 보면서 마음을 다시 한 번 굳게 먹었습니다.

대신 읽고 싶은 책 1권 가져가서 1권 읽고 왔습니다.

남성 슬링백? 저는 크로스백 하나 가져갔는데 작은 슬링백이 딱 편해 보이더라고요.

있다면 가져가시고 없으면 뭐 저처럼 있는 가방 이용하시면 되요. ㅎㅎ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첫 주는 5시땡 하면 매일 밖에 나갔습니다.

첫 주가 시간이 제일 안 간다고 해서, 그래서 밖에 나갔습니다. 현지 적응도 할 겸 주로 하버포인트와 SM몰 뒤쪽으로 갔습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을 경계하면서, 긴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는 요트여행 가기 전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몸이 약해졌는지

남자인 제가 제일 먼저 물갈이 걸렸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엉덩이로 오줌을 쏘았습니다.

함부로 방귀를 뀌면 안 됩니다.

물갈이로 몸이 약해져 감기도 걸렸습니다. 더운 여름인 필리핀에서 감기를 걸렸습니다.

몸이 나아지기 위해서 얇은 바람막이를 추울 때 마다 걸치고 거의 매일 마사지 받으러 갔습니다.(마사지 효과가 있었는지 3일 만에 회복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자주 가더라도 몸한테 힘내라고 국물이라도 조금 마시고, 소화 잘 될 만한 음식들로 조금씩은 먹었습니다.

세 번째 주는 SM 쇼핑몰 쪽 보다는 보드워크 쪽 걸어다녔습니다.

현지인에 대해서 경계심도 많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인사도 건네고, 길도 물어보고 편견도 많이 깨졌습니다,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점 가면 가드한테 웃으면서 길 물어보시면서 말 걸어보고,

음식점 가면 종업원 한테 화장실 어디인지 물어보고

말을 걸다보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얻고, 현지인과 대화할 여유, 자신감 생깁니다.

네 번째 주는 고아원 봉사준비 UP마닐라 대학 방문 등으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저희 SLC학원이 UP마닐라 대학과 연계 되어있어서 1달 공부하면 UP마닐라에서 공부시간을 인증해 주더라고요. 마닐라에서 엄청 큰 쇼핑몰을 못간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필리핀이 저는 첫 해외 여행지 이었습니다.

고정관념, 편견도 많이 깨지고, 어려웠던 영어가 영어는 단지 의사소통을 하기위한 '도구'라고 느끼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얻었습니다.

또 팀 리더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주위 사람들과 해결해 나가면서 돌아보니 힘들어도 보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필리핀 어학연수를 계기로 내년에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꼭 가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타이완 학생들은 방학이면 여기에 오는 학생들도 있던데. 저도 시간과 돈이 된다면 겨울에 다시 와보고 싶습니다.

이상 CAPTAIN JACK이었습니다.

거기에 농구공이 없어서 하나 놔두고 왔는데

CAPTAIN JACK 하고 Stephen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ㅎㅎ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리핀 떠나기



학원 내 수업실 수업 후 예는 자습실 여자는 타이완 학생들 남자는 순천향대



학원 내 수업실 수업 후에는 자습실 여자는 타이완 학생들 남자는 순천향대



승마하는 곳 타이완 학생들과





말 타고 30분가면 나오는 자연폭포



우리 요트 선장님



우리 그룹 광고 동영상



카마얀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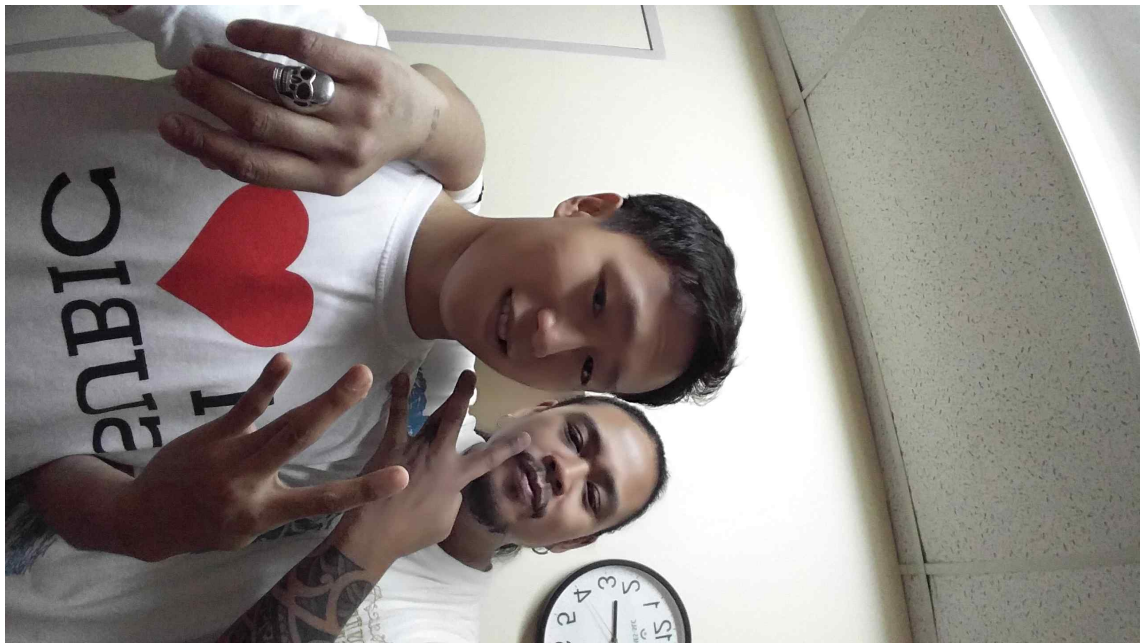




해변에서 만난 외국인



마닐라 인트라무드스 그룹사진



DAVE 선생님과 함께 WEST SITE표시



1그룹 뮤직비디오 상



졸업식